



스포츠 포커스

# 늦깎이 이등병 “팀 최소 실점 도전!”

광주 상무 불사조

골키퍼 김용대



“벤치가 아닌 그라운드에서 나의 이름 김용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싶다.”

김용대라는 이름은 축구를 즐겨보지 않는 이들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국가대표 골키퍼 이운재와 김영광의 팀 바구니 속에서 김용대의 실재가 좁았기 때문이다.

2000년 시드니 월드컵 국가대표, 아시안컵 국가대표, 컨페더레이션스 컵 국가대표, 독일월드컵 국가대표 그리고 2008 동아시아축구대회 국가대표.

광주 상무 골키퍼 김용대(29)의 국가 대표 이력은 화려하다. 2000년 A매치 데뷔를 한 김용대는 아시안컵에서 월드컵까지 두루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선 경기는 채 20경기가 되지 않는다. 위로는 노련한 이운재가 주전 수문장으로 버티고 있었고, 아래에는 패기의 김영광이 치고 올라오면서 김용대만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2인자라는 꼬리표가 김용대라는 이름 앞에 수직처럼 따라 다녔다.”

지난해 김용대는 2년 만에 A매치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베어백 감독의 부름을 받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리스 대표팀과의 친선전에 출전한 김용대는 이날 전·후반 내내 신들린 선방을 선보이며 1-0 한국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많은 경기들이 기억에 나지만 그리스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모든게 계획되어 있다는 듯 딱딱 들어맞았어요. 그 경기를 계기로 제 입지를 좀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대표팀과의 인연은 있었지만 유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큰 목표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행운이 온 것 이라고 생각한다.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마음 먹으면서도 벤치에 앉아있으면 속이 타고 욕심이 나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만을 밟으면서 축구를 해왔지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를 성장을 위한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대는 1979년 생이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0세. 노장 축에 더 가까운 김용대는 지난 11월 입대한 ‘늦깎이 이등병’이다. 축구 선수로서 좀더 자신의 이름을 확고히 하고 싶은 욕심에 입대가 많이 늦어졌다. 원 소속

팀 성남에서 확고한 주전으로 팀을 이끌며 한창 절정에 올랐던 만큼 입대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활기차다.

“제대 후 확실하게 주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상무에 입대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새 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김용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다. 김용대가 처음 축구를 시작한 것은 밀성 초

등학교 5학년 때다. 위로 누나만 네명이 있어 여성스러운 김용대는 좀 더 남성스럽고 싶다는 생각에 축구를 시작했다. 2살 터울의 스포츠 만능의 사촌형을 보고 자극 받아 시작했던 축구가 현재에 이르렀다.

## “만년 2인자 설움 씻을 기회

###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뛰어

### 국가대표 주전 되찾아야죠”

“축구를 시작했을 때 키가 154cm 밖에 안됐어요. 170cm 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리로 공을 걷어내는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키는 중학교 때 부쩍 자라면서 180cm까지 컸다. 김용대는 지금은 189cm의 장신과 긴 팔을 이용해 공중볼을 잘 다루는 골키퍼로 유명하다.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골키퍼를 맡았던 그는 솔직히 화려한 발재간의 공격수가 꿈이었다.

“축구부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 팀의 유일한 골키퍼가 가솔했어. 경기는 해야하는데 골키퍼는 없고 해서 대타로 나왔다가 주전 골키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하기 싫다고 때도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라는 목표 외에도 김용대는 상무의 최소실점 기록을 세우고 싶다. 올 시즌 동기들 중에 경쟁한 수비수들이 많은 만큼 기대도 높다.

“용대사!” 그를 아끼는 팬들이 부르는 별명이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이자 박지성과 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반데사르를 닮아 만든 것으로 김용대 자신은 이 별명이 무척 마음에 든다. 세계적인 골키퍼를 견주어 얻은 거창한 별명이 영광스럽다. 이제는 반데사르처럼 김용대라는 이름을 세계 축구팬들에게 알리고 싶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골키퍼의 위치가 권태보일 지도 모른다. 김용대는 오늘 관중은 얼마나 왔나 주위를 둘러보며 놀기도 한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한 경기를 뛰고나면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처럼 2~3kg 몸무게가 준다고 한다. 그만큼 경기 내 내 신경을 쓰고 고민해야하는 자리가 골키퍼다.

“공격수 뒤에는 수비수가 있고, 수비수 뒤에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받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거죠. 동료에게 믿음을 주는 골키퍼, 태극마크를 빛내는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 올해는 좀 더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b>닥터큐미용실</b> 동구 학동 전대병원 5거리농협 맞은편 최신헤어스타일,두피,모발관리전문 <b>대표 고정민</b> ☎(011)621-2057	<b>신화공인중개사사무소</b> 남구 진월동 SK텔렉롬 옆 토지,상가,아파트,매매,임대 상담현형 <b>대표 김외식</b> ☎(062)654-2487	<b>명가영명국밥</b> 광산구 송정동 매일시장입구출 씨빙구함 오후6~12시까지 <b>대표 박은숙</b> ☎(062)942-2727	<b>원광한약국</b>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106동앞 성실한 서비스 <b>☎(062)682-4666</b>	<b>행복이용원</b> 서구 화정동 대주@후문 염주전정문앞 1급 모범업소,기술본부 <b>대표 박홍수</b> ☎(010)2626-9225	<b>건강식당</b>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부경찰서 주차장옆 시골생할 건강식당 유기농채소 : 100%천연 식물성재료(국립농산물품질검사인증) <b>☎(062)236-3679</b>	<b>매직터치</b> 북구 양산동 우체국4거리에서 동아제약방면 보행수리전문,외제차정비,자동차외행복및외장관리 <b>대표 정양면</b> ☎(062)576-6820
<b>미소취깁</b> 동구 계림동 한국화장품 뒷편 튀김전문점(치킨 배달시 튀김인분 서비스) <b>대표 정동현</b> ☎(062)233-8246	<b>새로나보석원</b> 남구 주월동 청산@건너편 귀금속, 시계 전문점 <b>대표 오인갑</b> ☎(062)675-3119	<b>리바트가구호남전시장</b> 광산구 신항동 신동교와 보건대사이 식탁,거실장,세로문,제프의 장승 휘글전문점 <b>☎(062)959-6969</b>	<b>용봉커피숍</b> 북구 용봉동 현대자동차 옆 인디안2층 커피전문점,만남의광장 <b>대표 김정민</b> ☎(062)524-2895	<b>금성부동산</b> 서구 쌍촌동 CBS방송건너 등산, 부동산 전문 <b>대표 이순이</b> ☎(062)676-1588	<b>유학허브</b>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와 금남로빙향 정규조기유학,어학연수,빙햄프,비즈니스 <b>대표 이춘화</b> ☎(062)263-3434	<b>등지공인중개사</b> 양산동 양산택지개발 지구내 <b>대표 김선욱</b> ☎(062)576-4080
<b>번창회센터</b> 남구 주월동 광복천4거리 세포시,광어,우럭,송어,돔,각종회 전문 <b>대표 최성렬</b> ☎(062)672-3392	<b>창신DECO</b> 북구 두암동 능협3거리 벽지,장판,버티칼,롤스크린,키보드,리모델링 바닥장식제,종합인테리어 전문업체 <b>☎(062)367-2220</b>	<b>홍삼이야기</b> 서구 풍암동 대주2차상가 101호 홍삼액,홍삼정,송삼진과,홍삼절편 100%홍삼액 제조전문,수생(금산차)가죽(적삼) <b>☎(062)681-4624</b>	<b>엘사랑헤어</b> 동구 계림동 홈플러스옆 2층 컷트,염색등 유행스타일 헤어샵 <b>대표 범수경</b> ☎(062)222-1352	<b>한국관</b> 북구 용봉동 투인@임구 24시 편의점4거리 생고기,갈비살,소곱창전골 점심시간 (생태탕,조기찌개)5,000원) <b>☎(062)528-5599</b>	<b>고려홍삼(금호상무점)</b> 서구 쌍촌동 금호지구 CBS 건너편 정관장,홍삼농협홍삼,건강식품,홍삼원액전문 <b>대표 박윤경</b> ☎(062)384-2303	<b>마루</b> 북구 양산동 일신@앞 가마솥 설렁탕 전문 <b>대표 백수향</b> ☎(062)576-8899